

이상민  
Lee, Sang-Min  
840810

016 390 9441  
<http://m1neat.com>  
sayhello2jack@gmail.com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516동 1502호

---

하안북초등학교졸업 <sup>97.02</sup>  
하안중학교졸업 <sup>00.02</sup>  
소하고등학교졸업 <sup>03.02</sup>  
안양과학대산업디자인학부컴퓨터그래픽과졸업 <sup>07.02</sup>

---

육군 만기전역 (20사단 정훈병) - 시범식 교육 영상 및 드라마 촬영 <sup>06.11</sup>  
아트센터 나비 'Conneted' 전 도슨트 <sup>06.12</sup>  
안양과학대 AVEX 축제 메인 촬영 <sup>07.10</sup>  
안양과학대컴퓨터그래픽과졸업작품위원회영상팀장 <sup>07.11</sup>  
이재옥개인전영상제작 <sup>07.12</sup>  
SK Enclean.com 콘텐츠 관리 <sup>08.03~08.05</sup>  
OZComm. 디자이너 <sup>08.05~09.04</sup>  
여의도순복음교회 프뉴마선교회 Design Dept. <sup>08.11~Now</sup>

---

mac & pc

Photoshop, Illustrator  
Final Cut Pro, Premiere Pro  
Dvd Studio Pro  
inDesign, Quark Express 3.3  
Keynote

---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그것을 즐기는 나.

어릴적부터 그것을 좋아했던 나는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고, 시각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배울틈도 없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때쯤 군대를 위해 휴학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쯤 뭔가를 하고 군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도로 한달간 선교여행을 다녀옵니다. 인도에 가서 많은 것을 깨닫고 왔지만, 제일 인상깊었던 것은 붓과 물감으로 간판을 그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간판 디자인이라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마우스 클릭만으로 끝내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수작업으로 그들의 디자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공부하는 디자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움의 기회가 군대에 가서도 생겼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각종 훈련과 행사등에서 촬영과 보도를 담당하는 정훈병이라는 보직을 얻게 된것입니다.

실전을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하고 많은 작업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많이 활용하는 동시에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윗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전역을 하고 '아트센터 나비'에서 'Connected' 전의 도슨트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는 어떻게 작품들을 소개해야하는지 걱정이 앞섰지만,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니 한결 편하게 관객들에게 작품을 소개할 수 있었고, 도슨트를 통해서 단지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뻐보이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 이전부터 작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에 따른 목적과 이유등에 대해 잘 고려하고 작업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학교에 복학을 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심히 졸업을 준비하고 졸업전시위원회가 되어 영상부분에 관련된 일들을 도우며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주로 수입차(Porsche 와 Mercedes Benz)회사와 작업을 하고, 화가 선생님과 작업하는 회사였습니다. 때로는 신차발표회를 준비한다고 금요일 저녁 홍대에서 분당까지 가서 돕기도 하였고, 각종 매뉴얼을 만든다고 밤을 샅때도 있었습니다. A/S 팀의 직원 교육용으로 각종 교재도 만들었고, 서비스카드를 만들기 위해 그 회사의 스타일대로 간략하며 정보성있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 고생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화집을 만들기 위해 동리가 넘은 화가선생님을 하루가 멀다하고 만나고, 덕에 찾아가 짐을 튀겨가며 작품설명 하시는걸 받아 적고 고생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와 예배를 디자인을 하며 섬기는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디자인 색깔을 낼 수 있었고,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또다른 책임감과 주인의식으로 인해 또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사람들이 제 작업을 보며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볼때, 그리고 작업물이 (포스터 등) 주변과 잘 어울리는 걸 볼때, 기운과 힘을 얻어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짧게나마 다양한 경험을 하며 느낀점은 역시나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으며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 싫어졌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좀더 잘 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준비를 해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해왔기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난도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저 이상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